

- 주요 뉴스: ECB 통화정책회의 개최, 금리인하 확실시,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등에도 관심
 - ECB 주요 인사, 6월 금리인하 가능. 인플레이션은 금리인하에 위험 요인
 - 하마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에 긍정적. 이스라엘도 수용 예상
 - OPEC+, 내년 말까지 감산 지속. 산유국의 재정 강화 의지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부진 및 금리상승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4분기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강보합,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입찰에서의 수요 부진 등으로 상승
독일은 예상치 상회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10% 상승, 한국 CDS 상승

		5/31일	5/24일	전주말대비			5/31일	5/2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277.5	5,304.7	-0.51%	국채 금리 10y	미국	4.50%	4.47%	+3bp
	유럽	518.17	520.57	-0.46%		독일	2.66%	2.58%	+8bp
	중국	3,086.8	3,088.9	-0.07%		영국	4.32%	4.26%	+6bp
	일본	38,488	38,646	-0.41%	CDS 5y	한국	36bp	35bp	+1bp
	한국	2,636.5	2,687.6	-1.90%		중국	62bp	61bp	+1bp
환율	달러지수	104.67	104.72	-0.05%	위험 지표	EMBI+	370bp	335bp	+35bp
	유로화	1.0848	1.0847	+0.01%		VIX	12.92	11.93	+8.30%
	엔화	157.31	156.99	-0.20%		WII유	76.99	77.72	-0.94%
	위안화	7.2418	7.2436	+0.02%	원자재	구리	460.2	477.9	-3.69%
	원화	1,384.5	1,369.5	-1.08%		금	2,327.3	2,333.8	-0.2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통화정책회의 개최, 금리인하 확실히. 미국 5월 고용보고서 등에도 관심

- 6/6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며,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금리의 0.25%p 인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다만 시장에서는 그 이후의 금리 경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 라가르드 총재는 7월 금리인하는 어려우며, 9월에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 이에 연내 2회(6월과 9월, 각 0.25%p)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3회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 ECB와 연준의 통화정책 비동조화가 시작될 가능성. 다만 일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인플레이션 등으로 추가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PIMCO)
- 한편 6/7일 공개될 미국 5월 고용보고서도 시장의 관심사. 5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18만명으로 전월(17.5만명) 대비 소폭 증가하고, 연간 임금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나타낼 것으로 예상(3.9%→3.9%).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 이러한 상황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는 평가를 유도하면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일 가능성(BNP Paribas).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달성을 추진하면서도 과도한 경기 둔화는 피하기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 CME의 FedWatch Tool은 금년 9월 0.25%p의 첫 금리인하가 단행되고, 그 이후에는 내년 1월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27년 중반에 가능할 전망

- 팬데믹 기간에 형성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2%라는 인플레이션(연율) 목표는 '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추정. 특히 임금과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 등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금년 1/4분기 S&P500 기업의 이익은 전년동기비 8.0% 증가할 전망. 그 동안 실적을 발표한 489개 기업 가운데 78.3%가 예상치를 상회

■ 블룸버그 설문조사,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 응답자의 44%는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답.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 자신이 대선에 승리하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언급

■ ECB 주요 인사, 6월 금리인하 가능. 인플레이션은 금리인하에 위험 요인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센테노 위원은 5월 역내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상회했지만 6월 금리인하를 방해하지는 못한다고 발언. 다만 슈나벨 이사와 나겔 위원 등 매파적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하마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에 긍정적. 이스라엘도 수용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은 ①6주 동안의 전투 중단 ②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영구적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 ③가자지구의 대규모 재건 등으로 구성된 3단계 휴전안 제시. 하마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
- 한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내용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 다만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휴전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

■ 중국 5월 신규주택판매 금액, 감소세 둔화. 정부의 부동산 경기 지원 등에 기인

- 5월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판매 금액은 3224억위안으로 전년동월비 33.6% 감소. 이는 4월(-45.0%)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당국의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OPEC+, 내년 말까지 감산 지속. 산유국의 재정 강화 의지 등을 반영

- OPEC+는 내년에 일일 3972.5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로 결정. 이는 금년 1월 앙골라가 감산 조치에 반발해 OPEC을 탈퇴한 이후 추가 생산량 조정을 감안한 수치. 다만 일부 OPEC+ 국가는 감산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및 S&P 글로벌 제조업 PMI
- 유로존 5월 HCOB 제조업 PMI,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조만간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성장 둔화도 우려해야 할 소지 - WSJ

(The Fed Might Soon Have to Worry About More Than Just Inflation)

-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미국의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 이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1.6%보다 낮은 1.3%로 하향 조정된 것에서도 확인. 대부분이 소비감소의 영향에 기인하며, 일부에서는 2/4분기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Capital Economics)
- 그 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최우선 관심사였다면, 향후에는 점차 경기 둔화 여부에 초점을 둘 가능성. 특히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정책 당국이 우려할만한 사안. 4월의 경우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여 연준이 안심할 수 있으나,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 신규주문 감소 등으로 한계에 봉착 - WSJ

(China's Strategy to Use Factories to Revive Growth Begins to Show Cracks)

-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위주 경제성장 전략을 시행했으나, 5월 PMI가 전월 대비 49.5로 하락하는 등 의도와 다르게 전개. 특히 이는 미국 소비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 등에 기인. 이에 제조업 지원 확대로 수출에만 의존하려는 경제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시장에서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 만일 부진한 수출 성과가 6월에도 지속되면, 당국은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감안해 부동산침체 적극 대처 등 정책 선회가 필요할 소지

■ 미국 경제의 취약 분야, 높은 차입비용 등으로 회복속도가 완만 - 블룸버그

(Weakest Parts of the Economy Are Hindering Rate Cuts, Too)

- 경제성장, 물가, 노동시장 등으로 금리인하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분야의 회복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주택과 제조업 부문은 고금리 여파로 대체로 활동이 부진하며, 이에 관련 기업들은 차입비용 하락 여부에 주목
- 다만 신용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도 존재. 일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과 인공지능 분야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해당 분야의 호황이 이어진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금리인하 시기를 늦춰 가계지출 증가를 억제할 가능성

■ **글로벌 투자자, 금리안하 가능성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회복을 기대 - Financial Times**

(Investors bet on property for long-term despite bumpy ride since pandemic)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증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 이에 유럽에서는 '19년 연말 이후 30% 이상 가치가 하락했고,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실률이 치솟는 등 관련 시장은 거의 황폐화
- 반면, 소매부문 등 일부 상업용 부동산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다소 개선.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주택가격은 '23년 초 최저를 나타낸 이후 다시 반등
- 한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는 하락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은 경기 연착륙 기대가 강화. 이에 더해 부동산 공급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부동산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미국 저가주의 거래 증가, 증시 과열 신호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Boom in US penny stock trading prompts warnings of frothy markets)

■ **신생 핀테크의 금융범죄 노출, 기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 Financial Times**

(Why fintech upstarts have failed to unseat UK banks)

■ **영국 노동당의 거시경제정책 현상 유지 제안, 글로벌 경제 변화 등을 미반영 - Reuters**

(Change is coming to Britain's macroeconomic polic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